짧았던 마흔 해,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우현의 삶

고유섭 연보

1905 2월 2일, 경기도 인천군 다소면 선창리(船倉里) 용현(龍峴)에서 부친 고주연(高珠淵), 모친 평강(平康) 채씨(蔡氏) 사이에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아명은 응산(應山), 아호(雅號)는 급월당(汲月堂)·우현(又玄), 필명은 채자운(蔡子雲)·고청(高靑).

1910 취헌(醉軒) 김병훈(金炳勳)의 의성사숙(意誠私塾)에서 한학의 기초를 닦음.

1914 인천공립보통학교 입학.

1918 인천공립보통학교 졸업.

1920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 입학.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 문예부에서 활동함. 이 무렵부터 '조선미술사' 공부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함.

1925 보성고보를 우등으로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B부 입학. '조선문예의 연구와 장려'를 목적으로 조직된 경성제대 문학동호회인 '낙산문학회(駱山文學會)'에서 활동함.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에 진학.(전공은 미학 및 미술사학) 이 때부터 우에노 나오테루 교수로부터 당대 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학의 방법론을, 다나카 도요조 교수로부터 동양미술사를, 후지타 료사쿠 교수로부터 고고학을 배움.

1927 경성제대 문학동호회인 '낙산문학회(駱山文學會)'에서 활동함.

1928 이 무렵부터 미학에서 미술사로 관심이 옮아감.

1929 이점옥(李点玉)과 결혼.

1930 경성제대 졸업.(학사학위논문은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수로 일하기 시작함. 미학 관련 첫 논문 「미학의 사적(史的) 개관(槪觀)」. 미술사 관련 첫 논문 「금동미륵반가상의 고찰」 발표.

1931 금강산 여행.

1933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수 사임.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취임. 이 무렵부터 황수영(黃壽永)과 진홍섭(秦弘燮)이 제자로 함께하기 시작함.

1934 「조선의 탑파 사진첩」을 기획, 경성제대에서 개최함. 진단학회(震檀學會) 발기인으로 참여.

1936 이화여전(梨花女專)과 연희전문(延禧專門)에 출강하여 미술사 강의를 하기 시작함.

1939 첫 저서 『조선의 청자(朝鮮の靑瓷)』가 일본의 호운사(寶雲舍)에서 출간.

1941 이 무렵, 자본을 댄 고추 장사의 실패로 병을 앓기 시작. 이후 간장경화증 진단을 받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감.

1943 일본 도쿄 문부성(文部省) 주최로 열린 일본제학진흥위원회 예술학회에서 조선탑파 연구에 관한 최종 성과인 「조선탑파의 양식변천」을 발표.

1944 6월 26일, 간경화로 별세. 묘지는 개성부 청교면(靑郊面) 수철동(水鐵洞).

개성부립박물관 집무실에서. 1933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1944년까지, 우현은 이곳에서 수많은 연구와 집필활동을 했다.

'우현 고유섭 전집' 전10권 완간

2005년 우현 고유섭 탄생 백 주년에 즈음하여 열화당에서 기획한 '우현 고유섭 전집'은, 2007년 1차분 세 권, 2010년 2차분 네 권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3차분 세 권을 출간함으로써 열 권 완간의 결실을 맺었다. 이 전집은 지금껏 출간되었던 고유섭의 모든 저작들은 물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미발표 유고(遺稿)와 생전에 미술작품의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역을 직접 발로 답사하고 남긴 스케치, 도면, 소장 유물사진과 판련 자료 등 그가 남긴 모든 업적과 자료를 아울렀다. 한편, 국한문 병기(倂記), 인용 한문구절의 번역, 난해한 한자어나 미술용어에 대한 어휘풀이 및 주석, 해제, 수록문 출처, 도판 목록, 연보, 찾아보기 등의 세심한 편집체제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우현 고유섭 전집' 완정본(完整本)이 되도록 꾸몄다.

又玄 高裕燮 全集 전10권 / A5 / 양장 / 각권 케이스 / 세트 값 320,000원

第1卷 朝鮮美術史 上 總論篇
2007년 12월 출간 / 440면, 35,000원

第2卷 朝鮮美術史 下 各論篇
2007년 12월 출간 / 536면, 40,000원

第3卷 朝鮮塔婆의 硏究 上 總論篇
2010년 2월 출간 / 408면, 33,000원

第4卷 朝鮮塔婆의 硏究 下 各論篇
2010년 2월 출간 / 520면, 42,000원

第5卷 高麗靑瓷
2010년 2월 출간 / 152면, 20,000원

第6卷 朝鮮建築美術史 草稿
2010년 2월 출간 / 246면, 25,000원

第7卷 松都의 古蹟
2007년 12월 출간 / 424면, 35,000원

第8卷 美學과 美術評論
2013년 3월 출간 / 352면, 30,000원

第9卷 隨想 紀行 日記 詩
2013년 3월 출간 / 384면, 32,000원

第10卷 朝鮮金石學 草稿
2013년 3월 출간 / 224면, 28,000원

열화당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0-10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7000, 팩시밀리 (031)955-7010
www.youlhwadang.co.kr yhdp@youlhwadang.co.kr

韓國美에 숨과 혼을 불어 넣은 永遠한 등불

又玄 高裕燮 全集

全十卷 完刊

열화당

韓國美의 등불을 밝힌 又玄 高裕燮, 그 深遠한 학문세계

한국미술에 대한 근대적 학문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채 우리의 소중한 문화 전통이 말살되어 가고 있던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최초로 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한국미술사학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 그는 우리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준거(準據)를 세우고, 나아가 한국미술에 대한 학문적 궁구(窮究)를 통해 실질적인 한국미술사학 연구의 초석(礎石)을 마련하여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미술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 또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미술 제반 분야에서 근대적 학문체계를 이루어낸, 위대한 미술사학자이자 뛰어난 인문학자였다. 그러나 해방과 전쟁·분단을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고유섭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 가고만 있다. 또한 우리의 미술사학, 오늘의 인문학은 근간을 백안시(白眼視)한 채 부유(浮遊)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열화당에서는 2005년 선생의 탄신 백주년을 맞아 '우현 고유섭 전집' 열 권을 기획했고, 2007년(1차분 세 권), 2010년(2차분 네 권), 2013년(3차분 세 권), 세 차례에 걸쳐 열 권의 전집을 완간했다.

마흔 해라는 짧은 생애에 우현 선생이 남긴 업적은, 육십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못다 정리될, 못다 해석될 방대하고 심오한 세계였지만, 원고의 정리와 주석 작업, 도판 선별, 그리고 편집·디자인·장정 등 모든 면에서 완정본(完整本)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꾸몄다. '우현 고유섭 전집'은 지금까지 발표 출간되었던 우현 선생의 글과 저서는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발표 유고, 도면 및 소묘, 그리고 소장하던 미술사 관련 유적·유물 사진 등 선생이 남긴 모든 업적을 한데 모아 엮었다. 즉 제1·2권 『조선미술사』 상·하, 제3·4권 『조선탑파의 연구』 상·하, 제5권 『고려청자』, 제6권 『조선건축미술사 초고』, 제7권 『송도의 고적』, 제8권 『미학과 미술평론』, 제9권 『수상·기행·일기·시』, 제10권 『조선금석학 초고』가 그것이다. 열화당에서는, 우현 선생의 문도(門徒)인 황수영·진홍섭 선생과, 한국미술사 제반 분야의 권위있는 학자, 한문 번역 및 주석 작업을 위한 한문학자, 그리고 유족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우현 고유섭 전집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현 선생이 남긴 미술사 연구 업적의 가치와 의의를 더욱 심도있게 조명했다.

경성제대 시절, 교수 연구실에서. 왼쪽부터 고유섭, 다나카 도요조 교수, 동료 나카기리 이사오, 우에노 나오테루 교수. 1929.(위)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교 시절, 우에노 나오테루 교수와 함께. 1930년대초.(아래)

열화당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우현 고유섭 전집'은 우현 선생의 방대한 학문적 성과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료적 가치는 물론, 그 속에 깃들인 우리 미술문화에 대한 한없는 애정, 이에 대한 학문적 체계 수립의 열정 등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문출판의 한 전범이 될 것이며 우리 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부디 이 전집이, 오늘의 학문과 예술의 줄기를 올바로 세우는 토대가 되고, 그리하여 점점 부박(浮薄)해지고 쇠퇴해 가는 인문학의 위상이 다시금 올곧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

又玄 高裕燮 全集 發刊委員會

자문위원 황수영(黃壽永) 진홍섭(秦弘燮)
이경성(李慶成) 고병복(高秉福)

1차분 편집위원 허영환(許英桓)
이기선(李基善) 김영애(金英愛) 최열

2차분 편집위원 김희경(金禧庚),
이기선, 최열, 이강근(李康根)

3차분 편집위원 정영호(鄭永鎬), 이기선,
최열, 이인범(李仁範)

금동미륵반가상.

朝鮮美術史 上·下

又玄 高裕燮 全集 1·2

총론편과 각론편 두 권으로 선보이는 『조선미술사』는, 고유섭 사후에 유저(遺著)로 출간되었던 『조선미술문화사논총』(서울문화사, 1949), 『전별의 병』(통문관, 1958),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통문관, 1963), 『한국건축미술사 초고』(고고미술동인회, 1964), 『조선미술사료』(고고미술동인회, 1966) 등에 나뉘어 실렸던 한국미술사 관련 개별 논문들을 모두 모아, 저자 생전의 목표였던 조선미술 통사(通史) 서술의 체제에 맞게 '조선미술 총론'을 상권으로, '건축미술' '조각미술' '회화미술' '공예미술' 등 각론을 하권으로 각각 재편성한 것이다.

총론편에는 고유섭이 조선미술 통사 서술을 의도로 집필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조선미술약사」를 필두로, 조선미술 전반 또는 특정 시대의 미술에 관해 쓴 총론 형식의 글 열여덟 편이 실려 있다. 그 중 미발표 유고는 「조선미술사 서(序)」「조선미술약사」「조선 조형예술의 시원」 등 세 편이며, 나머지는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수 시절에 발표한 「조선 고미술(古美術)에 관하여」(『조선일보』, 1932. 5. 13–15)부터 개성부립박물관장을 역임하던 때에 발표한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 문제」(『춘추(春秋)』, 1941. 7)까지 근 십 년에 걸쳐 씌어진 글들이다.

각론편에는 '건축미술' 아홉편, '조각미술' 네 편, '회화미술' 열한 편, '공예미술' 아홉 편 등 총 서른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중 미발표 유고는 「백제건축」「조선의 묘탑에 대하여」「연복사종에 관한 약해(略解)」「문헌에 나타난 고려 두 요지(窯址)에 대하여」 등 네 편이며, 나머지는 경성제대 졸업 직후 미술사 관련 글로는 가장 처음 발표한 「금동미륵반가상의 고찰」(『신흥(新興)』 4호, 1931)부터 고유섭이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발표한 「불국사의 사리탑」(『개한(淸閑)』 15, 1943)까지 십여 년에 걸쳐 씌어진 글들이다. 책의 구성은 고유섭이 계획했던 조선미술사 서술 체제에 따라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순으로, 그 안에서는 각 분야의 총론, 시대별 각론 순으로 재편했다.

조선미술의 역사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창조성을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자 했던 고유섭은, 조선미술의 특징을 가리켜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구수한 큰 맛' 등으로 정의했으며, 이 두 권에는 이러한 고유섭의 미학관과 미술사관이 잘 드러나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문헌과 실물(實物), 실적(實跡)을 통한 세밀한 검토·고찰과 비교연구 등 근대적인 미술사 방법론에 의거해 우리 미술을 최초로 학문화한 업적의 완본(完本)이라 할 수 있다.

차례

상권–총론편
발간에 부쳐 / 해제–최열 / 조선미술사 서(序) / **제1부 조선미술약사 총론** 1. 삼국 이전 시대 / **제2부 조선미술 총론**
조선 고미술(古美術)에 관하여.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조선문화의 창조성. 조선 미술문화의 몇낱 성격. 우리의 미술과 공예. 조선 고대의 미술공예. 조선 고적(古蹟)에 빛나는 미술. 조선미술과 불교. 조선 조형예술의 시원. 고대인의 미의식 등 16편 / 주(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하권–각론편
발간에 부쳐 / 해제–최열 /
제1부 건축미술
백제건축. 김대성(金大城) 등 9편 / **제2부 조각미술** 조선의 조각. 금동미륵반가상의 고찰 등 4편 / **제3부 회화미술** 조선의 회화. 고구려의 쌍영총(雙楹塚) 등 11편 / **제4부 공예미술** 신라의 공예미술. 박한미(朴韓味) 등 9편 / 조선미술사 초고 총목 / 주(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경주 감은사지 삼층탑.

朝鮮塔婆의 硏究 上·下

又玄 高裕燮 全集 3·4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고대 조형을 대표하는 탑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이자, 한국미술사 연구사상 초유의 역작으로, 고유섭의 우리 미술사 제분야에 대한 연구 중 으뜸으로 자리매김된다. 상·하 두 권으로 선보이는 『조선탑파의 연구』는, 저자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학보』에 발표했던 「조선탑파의 연구」와, 같은 제목으로 별세에 이르기까지 일문(日文)으로 진행하고 있던 것, 그리고 일문으로 집필한 한국탑에 대한 각론들을 아울러 명실공히 '조선탑파의 연구 결정판'으로 묶은 것이다.

명쾌한 양식론과 문헌연구로써 이전의 일본 관학자들이 우리 탑에 대해 추측한 연대나 시대양식을 수정하고 반론을 제시하며, 그간의 자료 나열적인 미술사 서술을 극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서술한 이 책은, 현존하는 불교문화재 중 수적(數的)으로 가장 많은 탑에 관한 완성도 높은 연구서로, 그의 모든 저작 중에서 우리 미술사를 바라보는 혜안과 깊은 통찰력이 단연 돋보인다.

차례

상권–총론편
발간에 부쳐 / 해제–강병희 / **제1부 조선탑파의 연구 I** 1. 서설(序說) 2. 목조탑파(木造塔婆) 등 4편 / **제2부 조선탑파의 연구 II** 1. 탑파의 의의 2. 조선 불교의 시전(始傳) 등 8편 / **제3부 조선탑파의 양식변천** / 석탑 세부명칭도 / 초판 서문(1948)–이여성 / 초판 발문(1948)–황수영 / 재판 서문(1975)–황수영 / 주(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하권–각론편
발간에 부쳐 / 해제–강병희 / **제1부 조선탑파의 연구 각론 I** 1. 보은 법주사 목조오층탑(팔상전) 2. 화순 쌍봉사 대웅전 등 38편 / **제2부 조선탑파의 연구 각론 II** 1. 서울 사현사지(추정) 오층석탑 2.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 등 68편 / 석탑 세부명칭도 / 「조선탑파의 양식변천 각론」 후기(1955)–황수영 등 5편 / 편자주(編者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청자상감모란문 항아리.

高麗靑瓷

又玄 高裕燮 全集 5

1939년 일본에서 출간된 『조선의 청자(朝鮮の靑瓷)』(東京, 寶雲舍)를 고유섭의 제자 진홍섭(秦弘燮)이 1954년 우리말로 번역하여 『고려청자』(을유문화사)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는데, 이를 저본으로 삼아 문맥을 가다듬고 오류를 정정하여 새롭게 펴냈다. 저자가 생전에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것 중 유일하게 책으로 간행되어 그 결실을 보았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공예 미술품인 고려청자에 관한 애정 어린 연구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자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명칭과 그 의미를 살피고, 청자의 종류와 변천과정, 요지(窯址)와 출토지역에 관해 고찰한다. 고유섭은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한 후 공예미술 중에서도 자기(瓷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학자들에 의해 자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었지만,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문헌기록과 유물을 세심히 고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려청자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이 책에 집약되어 있으며, 청자가 발생한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색채·형태·문양 등 총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입문서라 할 수 있다.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강경숙 / 1. 청자란 무엇인가 / 2. 청자라는 명칭 / 3. 청자의 발생 / 4. 청자의 종류 / 5. 청자의 변천 / 6. 청자의 요지(窯址) / 7. 청자의 전세(傳世)와 출토 / 8. 청자의 감상 / 초판 서문(1954)–진홍섭 / 재판 서문(1977)–진홍섭 / 편자주(編者註) / 어휘풀이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朝鮮建築美術史 草稿

又玄 高裕燮 全集 6

고유섭이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1930년대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발표 유고 「조선건축미술사 초고(草稿)」의 복간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 통사(通史)이다. 1964년 고고미술동인회에서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등사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조선탑파의 연구』와 더불어 한국건축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조선건축의 지위, 사적 분류, 특징 등을 서술한 총론을 시작으로 상고시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시대까지를 통관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대 건축의 주된 형식과 그 특징을 밝혀 나감으로써 우리 건축사의 주요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건축사를 극복할 미학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건축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립되었다는 점에서도 한국건축사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문헌이다.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이강근 / **총론** 조선건축의 지위. 조선건축의 사적 분류. 경관. 조선건축의 특징. 외관. 내관. 재료 구조. / **제1장 상고시대** / **제2장 삼국시대** 고구려의 건축. 백제의 건축. 가락의 건축. 고신라시대의 건축. / **제3장 신라통일시대** 탑파. 특수건축. / **제4장 고려의 건축** 세속건축. 불사건축. 특수건축물. 결론. / **제5장 조선조의 건축** 성곽. 궁궐. 불사. 결론. 대한시대 / 초판 범례(1964) / 초판 발문(1964)–황수영 / 만월대 실측 평면도 / 주(註) / 어휘풀이 / 참고서목(參考書目) / 참고도판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7

고유섭이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1930년대, 개성 일대의 유적들을 답사와 실측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 문헌자료를 고증하여 완성한 고려문화에 관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 생전에 출판을 위해 탈고를 마쳤으나 사후인 1946년 10월 박문출판사에서 초판 발행되었으며(『송도고적』은 유일하게 저자 생존 시 우리 말로 탈고하여 출간된 단행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후 열화당(1977)과 통문관(1993)에서 각각 재발간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송도의 고적』은 1946년 초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대교(對校)하고 나머지 두 판본을 참조하여 초판본과 재판본의 오자(誤字) 및 오류를 다수 정정했으며, 초판본에 실렸던 서른세 편의 글에, 초판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개성과 관련되는 글 다섯 편을 부록으로 덧붙여 엮은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고유섭이 당시 개성에서 발간되던 격주간지 『고려시보(高麗時報)』에 '개성고적안내'라는 제목하에 연재했던 것들로, 책의 구성은 저자가 재구성한 초판본의 순서를 따랐다. 고유섭은 생전에 미술사 제반 분야를 연구하면서 당시 유물·유적을 담은 사진 수백 점을 소장해 왔는데, 이 책을 편집하면서 일부 개성의 유물·유적 사진을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실었다. 그리고 개성의 유적을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유섭이 소장하던 당시의 개성지도를 간략하게 재구성하여 실었으며, 지도의 사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본 그대로 복제한 지도를 별책으로 덧붙였다. 고려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개성의 고적을 복원하고 있는 이 책은, 근대적 안목으로 개성의 유적을 탐구한 최초의 지지적(地誌的) 자료이며, 고려시대의 미술 중 개성을 비롯한 북한의 자료가 미비한 가운데 개성의 유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서이다.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이기선 /
송도고적도 / 송도의 고적 서(序) 1. 송도 고적 순례 2. 고려의 경(京) 3. 개경의 성곽 4. 광명사와 온혜릉 5. 일월사 · 광명사 변 6. 소격전과 귀산사 7. 구재학과 중화당 8. 안화사의 전망 9. 중대, 본시 법왕사 터 10. 수덕궁 태평정 11. 순천관의 연혁 12. 봉은사와 국자감 13. 흥국사와 그 부근 14. 수창궁과 민천사 15. 연복사와 그 유물 16. 유암산의 고적 등 33편 / 초판 발문–황수영 / 재판 발문–황수영 / **그 밖의 개성 관련 글** 1. 고대 정도(定都)의 여러 조건과 개성 2. 선죽교 변(辯) 3. 고려 구도 개성의 고적 4. 개성박물관을 말함 5. 개성부민의 실공 / 주(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 별책부록〈개성 특수지형도〉

개성부립박물관 전경. 1930년대.

美學과 美術評論

又玄 高裕燮 全集 8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고유섭이 궁극적으로는 한국미술사학에 큰 업적을 쌓았지만, 그런 그의 학문적 바탕이 되어 준 것은 철학과 미학이었다. 이 책은 고유섭의 미학·미술평론 관계 글 스물세 편을 한데 묶은 것이다. 제1부에는 1930년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인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를 시작으로, 1941년 4월 『문장(文章)』에 발표한 「유어예(遊於藝)」에 이르기까지 미학 관계 글 일곱 편이 실려 있고, 제2부에는 고대미술·현대미술·건축예술·향토예술·불교미술 등 다양한 주제의 미술평론 글, 그리고 일본·중국·한국의 몇몇 화가들에 관한 작가론 등 모두 열여섯 편이 실려 있다.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이인범 /
제1부 美學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 미학의 사적(史的) 개관(槪觀). 미학개론(美學槪論). 형태미(形態美)의 구성. 현대미(現代美)의 특성. 말로의 모방설. 유어예(游於藝) /
제2부 美術評論 신흥예술(新興藝術). 러시아의 건축. 「협전(協展)」관평(觀評). 현대 세계미술계의 귀추. 미(美)의 시대성과 신시대(新時代) 예술가의 임무.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별. 고대미술 연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향토예술의 의의와 그 조흥(助興) 등 16편. / 주(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隨想 紀行 日記 詩

又玄 高裕燮 全集 9

1925년에서 1941년 사이에 집필 또는 발표한 산문들을 묶은 것으로, 학창시절 꾸준한 문예반 활동을 했었고, 말년에 공민왕을 소재로 한 작품을 꿈꾸기도 했던 고유섭의 문학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성찰적 수필과 우리 미술·문화에 관한 산문 스물여덟 편을 제1부 '수상'으로, 국내외 역사 유적(遺蹟) 기행문 여덟 편을 제2부 '기행'으로, 1929년부터 1941년까지의 일기와 초기 시(詩) 다섯 편을 제3부 '일기·시'로 하여 각각 집필 연대 순으로 구성했다. 끝으로 개성부립박물관장 시절인 1937년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인터뷰 기사와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조광(朝光)』에 실렸던 설문 여덟 편을 이 책의 '부(附)'로 수록했다.

경주 사천왕사비(四天王寺碑) 단편.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최열 /
제1부 隨想 무종장(無終章). 평생아자지(平生我自知). 참회(懺悔). 학난(學難). 고난(苦難). 심후(心候). 석조(夕照). 무제(無題). 남창일속(南窓一束). 화강소요부(花江逍遙賦). 와제(瓦製) 보살두상(菩薩頭像). 만근(輓近)의 골동수집(骨董蒐集) 등 28편 /
제2부 紀行 의사금강유기(擬似金剛遊記). 사적순례기(寺跡巡禮記). 금강산(金剛山)의 야계(野鷄). 고구려 고도(古都) 국내성(國內城) 유관기(遊觀記). 명산대천(名山大川) 등 8편 /
제3부 日記·詩 우현(又玄)의 일기. 경인팔경(京仁八景). 성당(聖堂). 해변(海邊)에 살기. 춘수(春愁). 시조 한 수. /
附 묵은 조선의 새 향기. 설문 모음. / 편자주(編者註) / 어휘풀이 / 수록문 출처 / 도판 목록 /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

朝鮮金石學 草稿

又玄 高裕燮 全集 10

저자가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1933년에서 1944년 사이에 강의를 위해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로, 이후 손질하여 출판하려 했으나 완성하지는 못한 유고(遺稿)를 관련 도판과 함께 엮었다. 금석학은 고유섭 생존 당시 그 체계와 연구가 매우 미진했으나, 역사학, 미술사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학문분야였다. 금석학의 학문적 의의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금석학 사료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완고(完稿)는 아니지만 '한국 금석학 연구의 첫걸음'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며, 지금까지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온 귀중한 문헌이다. 책 말미에는 전집의 마지막 권으로서, '고유섭 저술목록'과 '고유섭 장서목록', 소묘와 유묵(遺墨), 육필원고(肉筆原稿), 유품(遺品)들을 정리한 '우현의 흔적들', 마흔 컷의 사진을 곁들인 '사진과 함께 보는 고유섭 연보' 등 고유섭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록했다.

차례

발간에 부쳐 / 해제–정영호 / 서(序) /
1. 금석학의 의의 / 2. 금석학의 역사 /
3. 금석학의 자료 1. 인(印)과 봉니(封泥) 2. 와(瓦)와 전(塼) 3. 화전(貨錢) 4. 이기류(彝器類) 5. 이기(利器) 6. 칠기류(漆器類) 7. 묘지(墓誌) 8. 경감류(鏡鑑類) 9. 석각(石刻類) 10. 탑지류(塔誌類) 11. 탑비(塔碑) 12. 사찰기적비(寺刹記蹟碑) 13. 순수(巡狩)·척경(拓境)·강계비갈류(疆界碑碣類) 14. 조상기류(造像記類) /
附 대각국사비(大覺國師碑)에 관하여. 부도류(浮屠類). / 주(註) / 어휘풀이 / 도판목록 /
資料 고유섭 저술목록(著述目錄). 고유섭 장서목록(藏書目錄). 우현의 흔적들. 사진과 함께 보는 고유섭 연보. / 찾아보기